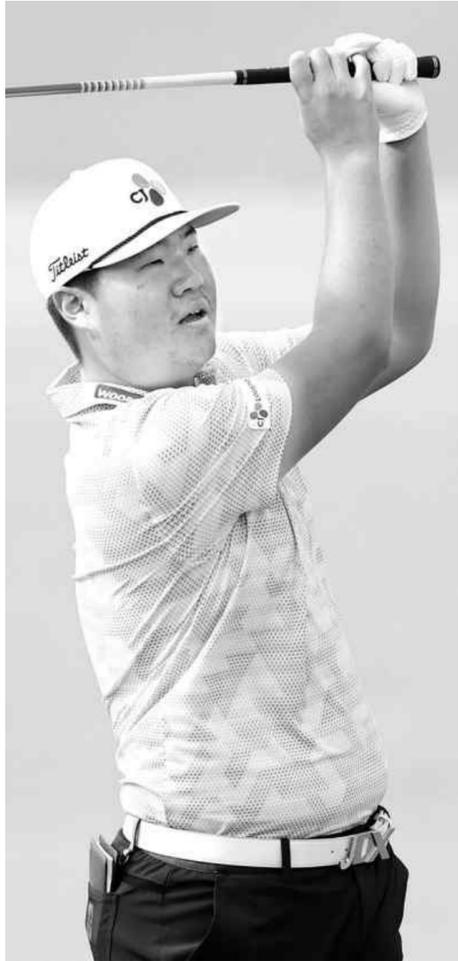


US오픈 도전장 내민 임성재



17일 개막 앞두고 PGA투어와 인터뷰
“까다로운 코스 티샷 정확도 가장 중요”

남자골프 메이저대회 US오픈을 준비하는 임성재(23·사진)가 길고 까다로운 코스에 대비한 통 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성재는 9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의 인터뷰에서 “토리 파인스 골프 코스는 길고 정확성이 필요한 곳”이라며 “티샷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다. 티샷을 잘 보내야 예선을 통과하고 상위권에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올해 US오픈은 17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 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열린다.

대회 장소인 토리 파인스의 사우스(남) 코스는 PGA 투어 대회가 열리는 코스 중에서도 손꼽히게 어려운 곳으로 통한다. 2008년 US오픈 때는 전장 7643야드에 파71로 경기했다. 페어웨이는 좁아지고 그린은 빠르고 단단해 선수들을 힘들게 했다.

“토리 파인스에서 3년 동안 쳐 봤지만, 아직 잘 맞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털어놓은 임성재는 “통 게임, 미들-롱 아이언이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컨디션이 좋을 때 롱 아이언이 잘 맞는 편이다. 때가 잘 맞아서 경기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아시아 국적 선수 최초로 준우승한 임성재는 메이저대회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US오픈도 선전을 다짐했다.

그는 “지난달 PGA 챔피언십(최종 공동 17위) 때 마지막 날 아쉬운 경기를 했지만, 나름대로는 만족스럽다. 점차 메이저대회에서의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며 “좋은 성적을 통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전했다.

US오픈에 앞서 임성재는 10일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풍가리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PGA 투어 팜메토 챔피언십에 출전해 샷 감각을 조율한다.

임성재는 “코스 중 9개 홀을 먼저 쳐봤는데, 다른 코스보다 페어웨이가 넓고 그린 주변 러프도 많이 없더라”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경기할 때 편안할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타이틀 방어전 나선 김세영

LPGA투어 메디힐 챔피언십 내일 개막
“우승으로 성장 동력이 된 대회 기대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디힐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에 나선 김세영(29·사진)이 이 대회 우승은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한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대회를 이틀 앞둔 9일(한국시간) 공식 회견에서 김세영은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는 시즌이 술술 풀렸다. 두 번 더 우승했고 가장 큰 상금이 걸린 시즌 최종전까지 제패했다”고 돌아봤다.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김세영은 “이 대회 우승으로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 대회가 열리지 않아 김세영은 이번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한다.

지난 7일 끝난 US여자오픈에서 공동 16위라는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성적을 받아온 김세영은 “코스가 너무 어려웠다. 페어웨이에 공을 안착시켜도 버디 찬스가 잘 없었다”면서 “하지만 배운 게 많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운 게 뭐냐는 질문에 김세영은 “내 전략은 간단했다. 페어웨이 한가운데 공을 떨어뜨리고 핀을 보고 샷을 하는 것이었다. US 여자오픈에선 이게 안 통했다. 페어웨이에 떨어진 볼도 굴러서 러프로 갔다”면서 “US여자오픈이 끝나고 컷 샷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컷 샷은 볼을 더 통제하기 쉽다”고 컷 샷을 준비했음을 내비쳤다. 컷 샷은 스핀을 많이 먹어 높은 탄도로 솟아올라 부드럽게 착지하는 샷을 말한다.

김세영은 이어 “이번 대회가 열리는 코스도 티샷이 중요하다. 잘못 치면 나무에 가려 그린 공략이 어렵다. 그래도 한쪽은 열려 있다. 올림픽 클럽은 양쪽 다 위험했다. 그게 다른 점”이라며 “그린이 빠르고 경사가 심해 티샷과 두 번째 샷을 다 잘 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이 코스를 어렵게 생각했는데, 우승해서 덜 어렵게 느낀다. 올해도 좋은 성적이 나면 점점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메디힐의 후원을 받는 김세영은 “메디힐이 메인 스폰서가 된 뒤 처음 이 대회에 나오게 돼서 의미가 남다르다. 좀 더 단단한 각오와 좋은 플레이로 경기를 잘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매 대회 우승상금만 45억원

프리미어 골프 리그 2023년 1월 출범... 시즌 18개 대회 개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프리미어 골프 리그(PGL)가 2023년 1월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PGL은 9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 골프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PGL이 밝힌 새로운 골프 투어의 개요에 따르면 2023년 1월 PGL의 첫 시즌을 개막하며 시즌은 8개월간 이어진다.

매 시즌 18개 대회가 열리고, 이 중 12개 대회는 미국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계획 중인 나머지 6개 대회 개최지는 추후 발표한다.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열리며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리는 개인전은 대회당 상금 2000만 달러가 걸려 있다.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 달러(약 44억6000만원), 최하위 상금만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15만 달러다.

올해 마스터스 우승 상금이 207만 달러였는데, PGL은 거의 2배나 되는 상금을 매 대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PGL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많은 무모와 추측들이 있었다”며 “팬들과 선수들, 골프계 전

체를 위해 프로골프가 더 좋아져야 한다는 취지로 PGL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을 바탕으로 리그를 꾸린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완벽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PGL의 2023년 1월 출범 선언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PGA 투어는 소속 선수들에게 “PGL에 참가하면 영구 제명”이라고 경고했고, “당근책”으로 선수 인기도를 측정해 상위 10명에게 40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2020년 초부터 수면 아래에서 선수 영입에 나섰다는 소문이 불거진 PGL이 공개 행보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PGA 투어, 유러피안 투어 등 기존 단체들과 ‘파워 게임’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지데이, 여자육상 10000m 세계신기록

하산 기록 이틀만에 갱신

레테센벳 지데이(23·에티오피아·사진)가 이틀 전 시판 하산(28·네덜란드)이 세운 육상 여자 10000m 세계 기록을 바꿔냈다.

지데이는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헬렌로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도요올림픽 대표 선발전 여자 10000m 경기에서 29분1초03으로 레이스를 마쳤다.

하산이 현지시간으로 6일 같은 장소에서 작성한 29분06초82를 5초79 앞당긴 세계신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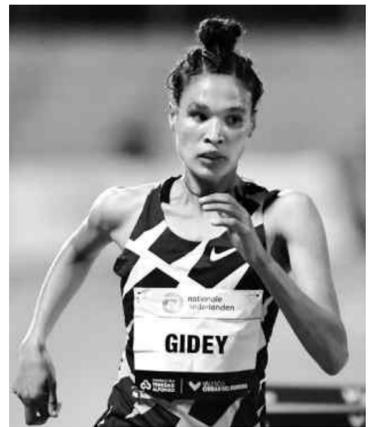
지데이는 세계육상연맹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기록 경신을 기대했다. 5000m와 10000m 세계 기록을 동시에 보유해 기쁘다”며 “29분대 벽을 꼭 깨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8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발렌시아 월드레코더데이 이벤트 여자 5000m에서 14분06초62의 세계 기록을 세운 지데이는 8개월 만에 10000m 세계 기록의 주인이 됐다.

세계육상연맹은 “노르웨이의 잉그리드 크리스티안센이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여자 5000m와 10000m 세계 기록을 동시에 보유했다. 여자 5000m와 10000m 기록을 동시에 보유한 선수가 탄생한 건, 28년 만이다”라고 전했다.

지데이는 크로코스트리에서 널리 알려진 유망 주였다. 2019년을 기점으로 트랙 위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로 부상했다.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 여자 10000m에서 깜짝 은메달을 따내며 트랙 종목에서도 주목받은 그



는 2020년 5000m에서 세계기록을 세웠고, 2021년 10000m 세계기록까지 작성했다.

하산은 1993년 1월 에티오피아 아다마에서 태어났지만, 2008년 고향을 떠났고 난민 신분으로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정착했다.

지데이는 에티오피아에서 자라, 청소년대표팀을 거쳐 장거리 최강자가 됐다.

둘은 ‘에티오피아 대표’ (지데이), ‘난민 출신 네덜란드 대표’ (하산)로 엇갈렸지만, 경기 뒤에는 진한 포옹을 하는 사이이다. 사연 많은 지데이와 하산의 10000m 대결은 도요올림픽 육상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법정 법인화 업무 마무리

광주시체육회가 법정 법인화 업무를 마무리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시체육회 법인설립은 지난해 민선 지방체육회법 정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추진했다. 전국 17개 시도 228

개 사·군·구가 대부분 법인설립을 완료했으며 법 시행일은 9일이다.

시체육회는 올해 초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정 법인화 업무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창립(발기인)총회를 열어 정관, 임원선임 등을 의결하고 광주시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최종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시체육회는 그동안 임의단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먼저 ‘체육단체의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포함하고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며,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해 지원의 근거가 담겨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크루엘라,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2관	크루엘라,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3관	크루엘라
4관	캐시트릭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6관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9관	캐시트릭, 파이프라인
7관 씨네커튼	캐시트릭,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8관 씨네커튼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실크 로드, 플래시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h 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캐터빌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토 19:30, 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